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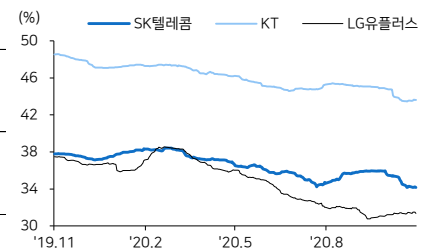
2020.11.16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3.2	6.5	3.6	29.4	18.0	18.0	1.0	1.0	1.7	1.7
통신업종	0.7	-1.0	-4.6	2.3	10.7	10.7	0.6	0.6	4.3	4.3
SK텔레콤	1.1	-2.1	-3.2	12.5	13.2	9.3	0.8	0.7	4.4	4.6
KT	2.6	2.6	-7.3	-4.9	8.9	7.6	0.4	0.4	4.8	5.0
LG유플러스	-3.0	-0.4	-6.5	-17.0	7.2	7.7	0.7	0.6	3.6	3.9
AT&T	5.4	5.3	-3.7	2.1	9.1	9.0	1.1	1.1	7.2	7.3
Verizon	4.3	5.0	3.9	11.6	12.6	12.2	3.6	3.2	4.1	4.1
T-Mobile	3.8	11.2	11.0	32.0	47.5	40.3	2.3	2.5	0.0	0.0
NTT Docomo	-0.3	-0.1	24.1	27.0	21.2	20.3	2.4	2.3	3.1	3.0
KDDI	3.8	12.3	-6.6	-1.9	11.4	10.9	1.6	1.5	3.7	3.9
Softbank	-0.8	-5.1	5.4	45.8	N/A	8.0	1.7	1.9	0.7	0.6
China Mobile	-1.5	0.0	-14.7	-11.7	8.1	8.0	0.8	0.7	6.8	7.0
China Unicom	-2.7	-6.6	-15.9	4.8	10.2	8.9	0.4	0.4	3.9	4.4
China Telecom	-2.7	5.1	-10.4	2.0	8.1	7.7	0.5	0.5	5.3	5.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4.2% (-0.1%p WoW, -1.3%p MoM)
KT 43.6% (+0.1%p WoW, -1.2%p MoM)
LGU+ 31.4% (-0.1%p WoW, +0.1%p MoM)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 4주 연속 지속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1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5%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LG유플러스는 기관 및 외국인 순매도로 인해 경쟁사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 기록
KT, 딜라이브 예비입찰 단독 참여로 유료방송시장 1위 굳히기 돌입
국내 기관은 KT, SK텔레콤 순매수, LGU+ 순매도. 외국인인 KT 순매수, LGU+, SK텔레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17일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대가 토론회 개최 예정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 갈등 지속. 토론 결과에 따라 주가センチ멘트 변화 예상
5G 통신장비 섹터 3Q20 실적은 16일 공시 완료될 전망이며, 대부분 시장 예상 대비 부진
12월 8일 미국 C-band 주파수 경매(Auction 107)를 시작으로 미국 5G 투자 본격화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	9	10	11	12	13 애플 '아이폰 12 Pro Max' 사전 주문	14
15	16	17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대 토론회 개최	18	19	20	21

3 주간 뉴스

▶ KT, 딜라이브 예비입찰 단독 참여

(전자신문)

- KT, 딜라이브 채권단이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입찰에 단독으로 인수의향서를 제출
- KT는 딜라이브 인수가격으로 약 7500억원을 제시. 딜라이브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약 200만명
- KT가 유료방송 시장 압도적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고심 끝에 입찰에 참여했다는 분석
- ⇒ KT, 딜라이브 인수시 KT스카이라이프 등 계열사를 포함한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41.45%로 상승
- ⇒ SKT 또는 LGU+가 CMB(시장점유율 4.58%), 개별 SO 9개(4.9%)를 모두 인수해도 역전 불가함

▶ 통신 3사, 아이폰12 프로맥스·미니 사전 예약

(ZD Net Korea)

- 통신 3사,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아이폰12 프로맥스'와 '아이폰12 미니'의 예약 판매를 시작
- SKT는 선착순 3천명에 출시일 배송, KT는 선착순 2천명에 출시 당일 새벽 배송 예정
-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달리 당일 배송 서비스가 아닌 온라인 프로모션과 사은품에 집중
- ⇒ 현재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12 프로맥스'에 대한 증산 요청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 사전 수요 물량에 향후 증산물량에 영향 전망, 5G 가입자 증가 및 ARPU 상승에 긍정적 효과 기대

▶ 디즈니 플러스 잡아라...KT-LGU+ '격돌'

(아이뉴스24)

- 월트디즈니 OTT '디즈니 플러스' 국내 독점 도입 협력사로 KT와 LG유플러스가 치열한 경쟁 진행 중
- LG유플러스는 LG그룹사가 전방위적으로 월트디즈니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효과 기대
- KT는 유료방송을 넘어 미디어 시장에서의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디즈니 플러스 도입에 적극적
- ⇒ 통신 3사 입장에서 OTT 육성은 미래 성장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을 보완하는 역할
- ⇒ SK텔레콤은 디즈니 플러스보다는 K-OTT 협력 웹의 글로벌 진출에 보다 집중한다는 전략

▶ 통신3사, 과기정통부에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정보공개 청구

(전자신문)

- 통신 3사, 10년간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며 과기부 대상 정보공개 청구
- 과기부의 주파수 310㎒ 폭 재할당대가 산정이 기준과 다르게 산정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
-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 필수
- ⇒ 이달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이 완료될 가운데 이를 둘러싼 통신 3사와의 갈등 지속 전망
- ⇒ 주파수재할당을 계기로 모호한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확산될 전망

▶ SKT, '보이는 컬러링' 가입자 50만명 돌파

(ZD Net Korea)

- SKT, 숏폼 영상을 활용한 보이는 컬러링 서비스 'V 컬러링' 가입자 출시 50일 만에 50만명 돌파
- V 컬러링 가입자는 연령별로 30~40대 47%, MZ세대 16%, 50~60대 장년층 가입자 32% 기록
- 가입자 중 60%가 넘는 30만명이 개인 취향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활발하게 다운로드받아 이용
- ⇒ 서비스 시작 이후 꾸준한 가입자 증가 추세 기록, 연말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 SKT는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와의 협업을 V 컬러링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시킬 계획

▶ KT '기가와이 인터넷' 가입자 10만 달성

(전자신문)

- 출시 4개월여 만에 KT '기가와이 인터넷(GiGA Wi 인터넷)' 가입자가 10만명을 돌파
- 기가와이 인터넷은 이동형 와이파이 공유기를 이용한 신개념 이동형 와이파이(WiFi) 서비스
- KT는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이 기가와이 인터넷을 선택했다고 발표
- ⇒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의 가정용 무선 공유기 출시 경쟁 심화 중
- ⇒ KT는 2022년 말까지 기가와이 신규 인터넷 가입자 1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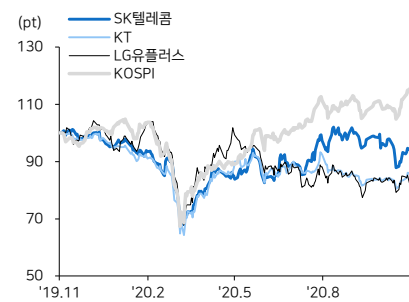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한국	SK텔레콤	229,500	16.7	17.6	1.2	1.3	1.3	1.8	4.9	5.1	5.2	5.0	5.9	8.1	
	KT	23,500	5.5	22.2	1.1	1.2	0.6	0.7	4.5	4.6	2.5	2.4	4.9	5.6	
	LG유플러스	11,500	4.5	12.5	0.8	0.9	0.6	0.6	2.9	3.1	3.4	3.2	9.3	8.3	
미국	AT&T	28.9	206.0	170.6	173.1	29.6	31.5	21.0	22.2	55.0	56.1	6.8	6.7	11.3	11.6
	Verizon	61.1	252.7	128.3	132.9	29.2	31.4	18.7	20.7	46.8	48.5	7.7	7.4	28.8	27.4
	T-Mobile	128.2	159.2	69.9	77.3	7.1	8.1	3.1	3.9	24.8	26.5	9.1	8.5	6.2	5.9
일본	NTT Docomo	3,877.0	119.6	43.4	44.4	8.0	8.4	5.5	6.0	13.6	14.4	8.6	8.5	11.2	11.7
	KDDI	3,105	68.4	48.6	49.9	9.7	10.0	5.9	6.2	15.7	16.7	5.1	4.9	14.9	14.5
	Softbank	6,667	133.1	57.1	60.8	-12.6	10.7	-7.1	13.9	5.6	19.6	40.6	11.9	-11.3	20.2
중국	China Mobile	50.0	132.0	114.7	118.7	17.3	17.5	16.2	16.5	43.9	45.0	1.6	1.6	9.5	9.3
	China Unicom	5.0	19.7	45.5	47.3	2.0	2.2	1.9	2.2	14.5	14.9	1.5	1.4	3.9	4.4
	China Telecom	2.5	26.0	58.7	61.2	4.5	4.7	3.2	3.3	18.0	18.5	2.0	1.9	5.9	6.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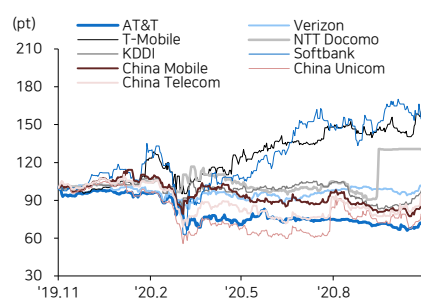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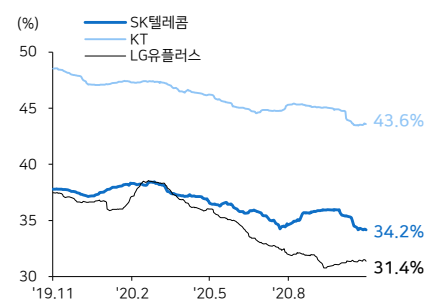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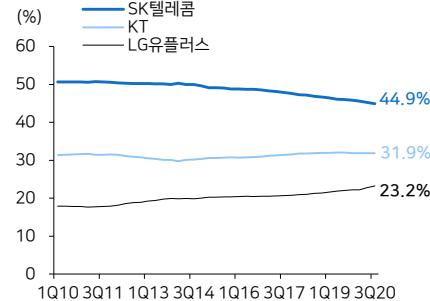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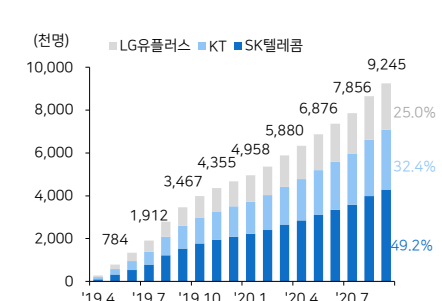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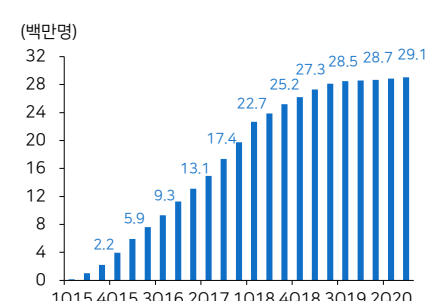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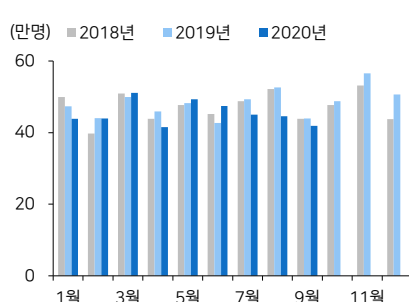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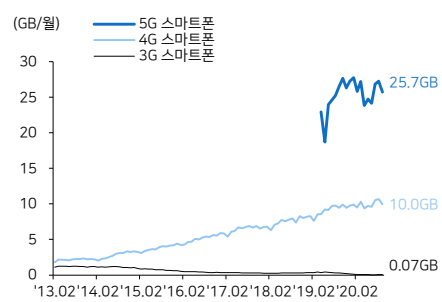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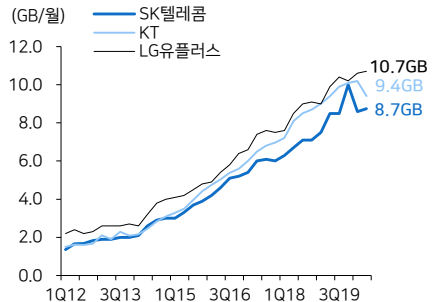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